

11/12/17

설교 제목: 칭의를 얻은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된 것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5:1-12, 18-21

-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 (롬 5: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 (롬 5: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롬 5: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롬 5: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절관주** 딤후 3:6
- (롬 5: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 (롬 5: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절관주** 롬 16:4
-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롬 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 (롬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 (롬 5:11)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 (롬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 (롬 5: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 (롬 5: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 (롬 5: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 (롬 5: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칭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이르러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칭의를 얻은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된 것들에 대해 열거합니다.

1.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의를 얻은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칭의를 받지 못해 죄인으로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를 진 인간과 화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하여져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의를 얻은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롬 5: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란 칭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칭의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천국,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과 견고한 소망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칭의를 얻어 구원 받은 성도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 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롬 5: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롬 5: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격을 단련하여 마침내 천국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면 고통을 겪게 되지만 후에 돌이켜 보면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 자신이 놀랍도록 성숙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단련시키기 위해 환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성도는 환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워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롬 5: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도의 천국 소망은 헛된 꿈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아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롬 5: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롬 5: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여된 것이라고 전 절에서 말한 바로 그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인인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일 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일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롬 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롬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의롭다 함을 얻은 자 즉 칭의를 얻은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롬 5:11)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칭의를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구원의 확실한 보증 속에서 소망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3.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의를 얻은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롬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을 신학 용어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에서 그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온 인류의 범죄로 간주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사건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 죄값을 치루어야 했는데 그 죄값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모든 인간은 죽게 된 것입니다.

(롬 5: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번에도 대표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 즉 아담의 범죄를 말하고 '한 의로운 행위'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고 의의 결국은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죄 사함을 받고 칭의를 얻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롬 5: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칭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으며 모세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범의 절정이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의 겸손한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보여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삼상 15: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은 그 어떠한 종교적 의식보다도 우선합니다.

(롬 5: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롬 5: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의 본성은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를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죄를 범한 죄인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죄사함의 은혜는 더욱 크고 넘치기 마련입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죄사함을 적게 받은 자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칭의를 얻게 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죄가 속해졌다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과 관계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꿈만 같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요동쳐야 합니다.

이 꿈만 같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끔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